
수달 사생활 엿보기

권경자 · 한성용 (한국수달연구센터)

누구든 물에 사는 동물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된다면 아마 가장 먼저 물고기를 떠올릴 것이다. 어느 하천에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어린 시절 한 번쯤은 그 물고기를 잡으러 여기저기 찰방거리던 기억을 추억할 것이다. 그 외엔 또 무엇이 있을까. 유유자적 물속을 도도하게 걷는 새도 있을 것이고, 이름 모를 수많은 곤충과 다슬기도 쉽게 떠올릴 것이다. 그럼 이게 다 일까. 아마 이 동물의 이름을 제일 먼저 생각해 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존재 여부 자체도 알지 못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야행성인 지라 우리가 야생에서 이 동물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없다는 것도 이유



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속 세계의 최상위에 존재하면서 수환경의 지표종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동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쉬이 그 모습을 허락하지 않는 동물, 수달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자.

∴ 내가 바로 수달이야

수달(水獺)이란 물에 사는 족제비란 뜻의 이름이다. 이름에서 보듯 그만큼 형체가 족제비와 비슷하던 말일 것이고, 또한 물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의 습성을 엿볼 수 있다. 수달은 분류학적으로 식육목, 족제비과에 속해 있다. 여기엔 많이 들어본 오소리, 족제비, 담비 등이 수달의 친척으로 함께 있다. 수달은 전 세계적으로 13종이 서식 분포하고 있으며, 각각의 종이 갖는 특성이나 지역에 따라 해달이나 큰수달, 북미수달 처럼 고유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13종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유라시아수달(Eurasian Otter, *Lutra lutra*) 한 종만이 서식하고 있다. 간혹 바다에서 해달을 봤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바다에서 헤엄치던 수달은 과연 해달일까. 바다에 살면 다 해달일까. 그렇지 않다. 해달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연안에만 서식하는 종으로, 그 모습도 다른 수달종들과는 매우 달라 분류학적으로 별도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이다. 그럼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 수달의 정체는 뭐란 말인가. 그건 육지에 사는 수달이 바다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경우이다.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 사는 수달들에게는 바다에서의 활동이 결코 이상하거나 특이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털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소금기를 씻어낼 담수가 주변에 꼭 있어야 한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라시아수달은 영국에서부터 우리나라로 이어지는 방대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극지방과 사막, 높은 산악지역을 제외한 유럽, 아프리카 북부, 아시아에 서식한다. 수달의 주요 서식지는 강, 계곡, 바다, 댐, 호수, 습지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수계로, 물줄기를 따라 서식하기 때문에 활동 영역을 표현할 때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길이만을

나타내는 km로 표기하는 생태적 차이점을 갖고 있다. 한때는 일본에도 수달이 서식하고 있었지만 산업 발달과 함께 수달이 살아가는 환경이 파괴되면서 1980년대 이후로 멸종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현재는 우리나라가 수달에게 있어 동쪽 끝 마지막 보루가 된 셈이다. 수달은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으며, 환경부 멸종위기 동식물에도 등재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의 서식 현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으며, IUCN Red List에서는 유라시아수달이 현재 Near Threatened 범주에 등재되어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그 등급이 격상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 사라진 수달을 기다리는 사람들

'몇 해 전, 일본 스자끼시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이곳은 멸종해 버린 일본 수달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곳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아직도 이곳엔 수달이란 동물이 갖는 상징성이 큰 곳이라 들었기 때문이다. 찾아간 시청에는 수달 캐릭터를 만들어 곳곳에 배치해 놓고 있었으며, 다양한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조형물 등 도시 곳곳에서는 수달을 기억하려 하는 시민들의 노력의 흔적들을 볼 수 있었다. 사람의 편리성과 깨끗한 외관만을 위해 훼손시켰던 수달의 터전을 다시 되돌려 놓았고, 일본 전역에서는 지금도 사람들이 수달이 마지막으로 촬영된 이곳을 찾아와 왜 일본에서 수달이 사라졌는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 강가



한 곳에 마련된 아담한 수달박물관은 다양한 수달과 관련한 자료와 물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다. 박물관 밖 넓은 뜰 곳곳에는 수달의 다양한 모습들이 조각 전시되어 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투영시킨 조각상들이 참 친근하게 느껴졌다. 지금도 이곳 사람들은 사라져버린 수달이 자신들의 간절한 노력으로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그들은 왜 수달을 기다릴까?

∴ 물에서 더 자유롭다

앞서 언급했던 이름에 물이란 의미가 들어갈 정도로 수달은 물과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수달은 물에서 산다. 정확히 말하면 물은 수달이 놀고 먹이를 찾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일 뿐, 물속에서 모든 시간을 할애하며 사는 것은 아니다. 간혹 사람들은 수달이 물에서만 사는 줄 알고 도움이 필요한 수달을 발견하면 무조건 물속으로 밀어 넣는 경우가 더러 있어 때로는 원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필자도 수달을 안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땐 어린 수달을 물속에 가두려고만 했던 기억이 있다. 그땐 자꾸만 밖으로 나오려 하는 수달을 이해하지 못했다. 수달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폐를 이용해 숨을 쉬는 동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



랜 시간을 물속에서 보낼 수 없고 최소한 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숨을 쉬어야만 한다. 수달의 조상은 육상에서만 생활하다 30만 년 전 먹이를 찾아 물가로 내려와 살면서 물속 생활에 적응하였고,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다.

코끝에서 꼬리 끝까지 이어지는 수달의 크기는 종에 따라 다양하지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유라시아 수달은 크기가 작은 쪽에 속하는



편이다. 남미 아마존의 큰수달은 그 길이가 무려 2m에 달해 난폭한 악어와도 대등한 싸움을 벌인다. 유라시아수달은 몸길이가 1m 내외로 무게는 암컷의 경우 대략 4~8kg이고, 수컷은 7~12kg으로 수컷이 대체로 더 크다. 몸은 전체적으로 유선형이어서 물속에서 헤엄을 칠 때 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꼬리는 단단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힘이 좋으며, 헤엄칠 때는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방향타 역할을 하고, 땅위에서는 수달이 두 발로 몸을 지탱하여 설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참고로 두 발로 서는 행동은 야생에서는 흔치 않고 사육하는 개체들에서 종종 보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족제비과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 수달의 다리 역시 몸에 비해 짧다. 이 짧은 다리는 물속에서의 완벽한 유선형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지만, 땅위를 걸을 때는 배가 땅에 끌릴 정도로 웬지 부자연스런 모습이 되고 만다. 수달은 겨울이 되면 더 많은 먹이를 먹고 배에 지방을 저장하기 때문에 이 모습은 더 우스꽝스럽게 되고 만다. 이때가 되면 정말이지 수달의 몸은 말 그대로 드럼통이 되고 만다. 수달은 주요 먹이가 되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잠수부가 헤엄을 잘 치기 위해 오리발을 신듯, 수달 역시 진화하면서 네 개의 발에 영구 물갈퀴를 갖게 되었다. 사람과 같은 다섯 개의 발가락 사이사이로 물갈퀴가 잘 발달되어 있어 물살을 빠르게 헤치고 나갈 수 있다. 주둥이 주변에 풍성한 수염은 물속에서 물고기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쫓을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달은 장시간의 잠수에도 뛰어난데, 이럴 경우 귀와 코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잠수와 동시에 코와 콧구멍이 자동으로 닫히는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눈, 코, 귀가 얼굴의 일직선 상에 위치하고 있어 호흡에 구애받지 않고 머리만 내 놓은 채 수면을 유유히 헤엄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독특한 신체 특징들이 수달을 물속에서 자유롭게 해준다.

∴ 소리 없이 조용히

'한 번은 수달이 머물고 있는 연못 여기저기에 나뭇굴고 있는 수달이 먹다 버린 물고기들을 치우러 들어갔다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다. 집게와 양동이 를 들고 열심히 고깃덩이를 집어 올리는데 갑자기 바로 옆 물속에서 뭔가 시커 먼 물체가 소리 없이 속 지나가는 게 아닌가. 크기도 만만치 않았다. 순간 나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지는 잊어버리고 괴물이란 생각에 순간 얼음이 되고 말 았다.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그 괴물이 수달일 수밖에 없다는 건 알았지만, 그 때 당시 그 연못에 머물던 수달은 완벽한 성체로 사람과의 교류가 거의 없어 야생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이거 공격이라도 당하면 또 여지없이 종아 리를 물리고 피를 볼게 뻔한 상황이었기에 서둘러 자리를 뜨고 말았다. 아무런 기척 없이 보금자리에서 나와 물속으로 들어가 헤엄칠 수 있다니.. 야생에서도 저렇게 먹이를 잡으리라. 그저 감탄할 수밖에.'

∴ 털은 나를 지켜주는 갑옷

이쯤해서 우리는 의문 하나를 갖게 된다. 과연 물갈퀴가 있다고, 헤엄을 잘 친다고 육상 포유류이면서 항온동물인 수달이 오랜 시간 물속에 머무는 게 가능할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우리 사람들도 헤엄을 잘 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물속에 머물 수는 없다. 수달 역시 이 문제에 있어 예외 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 바로 수달의 온몸을 둘러싸고 있는 털에서 그 해답을 구할 수 있다. 수달의 털은 두 개의 층으 로 이루어져 있다. 길이가 상대적으로 긴 바깥 털과 피부 전체를 뺨곡이

채우고 있는 안쪽 털이다. 바깥 털은 다소 거칠지만 그 아래에 있는 안쪽 털은 부드러운 솜털과도 같고 공기층을 보유하고 있어 수달이 물속에 들어가도 온몸이 흠뻑 젖는 것을 막아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준다. 물에서 나온 수달은 즉시 몸을 털거나 마른 풀 위에 몸을 비벼대며 몸을 말린다. 이런 습성 때문에 수달을 사육하게 되면 반드시 몸을 말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춰줘야 한다. 간혹 우리는 바다에서의 기름유출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된다. 두말할 필요 없이 생태계가 파괴되고 동물들이 죽어가고, 사람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된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재앙이 아닐 수 없다. 수달도 예외일 수 없다. 체온을 유지해 주는 털이 기름에 오염되면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엔 먹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죽음에 이르고 만다. 예로, 1989년 알라스카 William Prince Sound에서 일어났던 Exxon Valdez호 원유유출 사건으로 1,000여 마리에 달하는 해달이 신장, 폐, 간 등의 손상으로 죽음을 맞았다. 어미를 잃은 새끼들이 구조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어미로부터 야생에서의 생존방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였기에 결국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 동물원으로 보내졌다. 해달의 개체수는 회복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해저 바닥은 기름에 오염되어 있어 조개를 찾아 바닥을 파는 해달들은 아직도 그 위험에 노출될 잠재성이 충분하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린 늘 명심해야 할 것이다.

∴ 파괴는 순간, 복원은 평생... 독일 Ise 강 프로젝트

'독일에는 우리가 흔히 강이라 하면 떠올리는 큰 물줄기는 아니지만 작은 시내 같은 자연형 하천인 Ise강이 약 50km에 걸쳐 완만히 흐르고 있다. 한때 이곳에는 물줄기 주변으로 다양한 식생이 자리하고 있었고 유라시아수달이 서식하고 있었지만, 수로를 정비하면서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직선화 수로가 만들어지면서 수달들이 사라지고 말았다. 1987년 독일 수달보호협회는 이 하천 주변을 자생 가능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Ise강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20여



년에 걸친 노력 끝에 수계 주변의 환경을 복원하는데 성공했고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수달도 서식지가 복원되면서 돌아오게 되었다. 수달 개체수는 꾸준히 증가해 지금은 충분한 개체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7년 이후로 독일수달보호협회의 '수달보호프로젝트'는 약 500ha에 이르는 수계 주변의 농경지를 지속적으로 사들여 초지로 전환시키고 있고, 또한 약 46km에 이르는 사용되지 않은 강둑에는 오리나무를 심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농경지에서 유입되는 농약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줄이고, 갈수록 사라져 가는 야생동물들의 터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

∴ 물속 대장은 바로 나

수달의 생활터전은 당연 물이다. 결국 수달 먹이의 대부분이 이 물에서

얻어진다. 엄밀히 말하면 수달은 이것저것 다 먹는다. 그렇다고 풀을 먹는 다거나 사람의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물고기가 수달먹이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다. 조류, 곤충, 갑각류, 양서·파충류, 소형포유류 등도 수달의 먹이가 된다. 다만, 먹이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물고기이다. 그건 아마도 물에서 주로 생활하는 수달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종류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먹이 구조를 보면 수달은 수생태계의 최상에 위치하고 있다. 즉, 수환경의 조절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수달의 먹이가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지역의 생태계가 수달에 의해 적절히 유지되고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수달은 수심이 너무 깊은 곳에서의 사냥은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신체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데,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면 잠수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고 에너지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수달은 먹이사냥에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양의 먹이를 먹어 줘야 한다.

∴ 수달은 미식가일까

'본인이 일하고 있는 한국수달연구센터에는 어미를 잃거나 사고를 당해 들어온 수달들을 보호·치료하고 있다. 올 해는 여느 해와 달리 많은 수달들이 들어왔다. 그것도 어미 잃은 새끼들이. 우선 이곳으로 옮겨온 수달들은 상처 유무에 상관없이 동물병원에서 기본검진을 받는다. 아직 이빨도 나지 않은 새끼들은 우유부터 시작하게 된다. 이후 이빨이 자라나 우유병 젖꼭지를 자꾸 씹게 되면 뼈 없는 생선살만을 곱게 다져 먹인다. 이 시기가 되면 매일같이 커다란 배스 열댓 마리의 배를 가르고 포를 뜨느라 정신없다. 이젠 제법 능숙해져 횡집 차려도 되겠다고 농담처럼 말하곤 한다. 이후부터는 뼈가 단단하지 않은 미꾸라지, 빙어, 피라미와 같은 작은 물고기를 먹이게 되는데, 이때에도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 어린 수달들은 소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과식은 절대 피해야 하며,



조금씩 자주 먹어야 한다. 급하게 먹이를 먹거나 소화 장애를 일으킬만한 환경도 가급적 피해야 하고, 항상 모든 행동을 주시해야 한다. 물고기 한 마리도 거뜬히 처리할 정도가 되면 일반 크기의 물고기를 먹게 된다. 이곳에선 살아있는 미꾸라지, 메기, 배스, 피라미 등을 먹이로 하며 가끔 특식처럼 새우도 먹이는데, 이런 날이면 수달 똥이 붉다. 여러 먹이를 주다 보면 수달이 좋아하는 먹잇감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 지역 어부가 누치를 많이 잡

아 보내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 물고기는 사람도 맛있다는 이유로 잘 먹지 않는다. 수달은 어떨까. 역시 먹지 않았다. 이쯤 되면 수달이 아니라 사람이 배스와 메기를 비교해 보아도 메기를 훨씬 좋아해 가끔은 배스 보기를 돌같이 할 때도 있다. 크기도 따진다. 나이가 좀 있으신 커다란 물고기는 싫어하고 아직 어린 물고기들(배스 기준 약 20~25cm)을 좋아한다. 물론 배고프면 먹을 것이다. 그래도 본인들이 선호하는 먹이는 분명 있다는 것을 아주 가끔 강력히 주장하곤 해선 난감할 때가 있다.'

∴ 어린 수달에게 어미란

수달은 단독생활을 한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수컷은 홀로 살아가고

번식기에만 암컷을 만나 사랑을 나눈다. 이후 어미는 혼자서 새끼를 키우며, 생후 1년이 되어 새끼들을 떠나보낼 때까지 가족 무리로 생활하게 된다. 생후 1년이 되면 생식적으로 완전히 성숙하게 되지만 번식활동을 성공하려면 2~3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수달의 번식은 계절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연중 일어난다. 여름과 초가을에 어미 잃은 어린 새끼들이 신고되는 걸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봄과 초여름에 출산을 하는 듯한데, 한번은 추운 12월에 이제 막 눈을 뜨려하는 새끼들이 들어온 적 있어 모두들 의아해 했던 적이 있다. 임신 기간은 약 60여 일 정도로 평균 2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새끼가 태어날 때의 모습은 우리가 보는 수달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작은 손바닥 만한 크기에 갈색이 아닌 크림색의 털로 덮여 있다. 이때는 눈도 뜨지 못한 채 모든 걸 어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한다.



∴ 조금 더

'3~4년 전의 이야기다. 한 번은 먼 곳에서 수달 새끼 한 마리를 구조했던 소식이 들어왔다. 물고기 양식장의 물을 뺐는데 돌 틈에서 살고 있던 수달이 놀라 달아난 뒤 그곳에 가 보니 어린 새끼가 있더라는 얘기였다. 가끔은 사람들의 보호의식이 너무 지나칠 때가 있다.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보면서 어미가 새끼를 데려갈 시간을 줘야 했을 텐데 줄지에 어미 잃은 새끼가 되고 만 것이다. 급하다 하여 부랴부랴 서둘러갔다. 6월 초여름의 싱그러움과 종잡을 수 없는 소나기가 지나치는 그런 날이었다. 도착해 보니 할아버지께서 나를 데리고 건물 밖 지하실로 가셨다. 어둑하고 더운 바깥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한기로 가득 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이윽고 내 손에 내미시는 것은 작은 박스 하나. 그리고 그 안에 축 늘어져 있는 보얀 수달 새끼. 생각하시어 이곳에 두셨단다. 야생동물에 대해 알지 못했던 그분은 그게 최선이라 여기신 것이다. 만져보니 몸이 얼음이다. 희미하게 호흡은 살아 있지만 이곳에서의 더 이상의 방법은 없었다. 담당 수의사에 연락하니 일단은 체온을 올리는 게 급선무라고 하지만 생존 가능성은 낮을 것 같다고 했다. 뜨거운 초여름 날씨에 창문을 모두 닫고 차량 히터를 가득 틀고 그 앞에 바짝 새끼를 들이 댔다. 하지만 결국 생명의 끈을 놓고 말았다. 새끼는 체온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아직은 어미의 체온에 의지해야 하고, 어미의 젖에 의지해야 한다. 어미와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떨어진 새끼들은 면역력도 약해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만다. 또한 어미를 잃게 되면 또 다른 야생동물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 우리가 야생동물의 습성에 대해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많이 알았더라도..'

우리 사람도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많은 것을 배운다. 야생동물들 역시 같다. 무엇보다 생존과 직결된 사냥법이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이다. 거기다 수달은 물속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숙한 수영 실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아마 상당수 사람들이 수달은 어미 뱃속에서부터 수영 실력을 갖고 태어난 줄로 알 것이다. 그래도 명색이 수달인데.

∴ 수달 수영강습

'아직은 경험이 부족했던 시기에 구조된 어린 수달을 기른 적이 있었다. 아직 젖을 때지 않은 시기라 분유를 먹이고 함께 놀아주고.. 어린 수달에게는 내가 많이 부족하고 가끔은 황당한 어미였을 것이다. 그래도 잘 자라준 수달이 드디어 연못으로 옮겨갈 시기가 되었다. 이제껏 어린 수달이 아는 물이라곤 먹이와 함께 넣어 준 한 바가지의 물이 전부였다. 드디어 작은 우리를 벗어나 어린 수달에게 바다처럼 비칠 넓은 연못으로 이사 가던 날. 연못 땅 위에 내려놓자마자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멋지게 헤엄칠 수달을 상상하며 품안의 수달을 내려놓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겁만 잔뜩 먹고 웅크린다. 물론 낮

선 환경에 그럴 수 있었다. 그런데 큰물을 바라보며 씩씩 거릴 뿐, 발끝만 닿아도 놀라 뒷걸음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 수달 맞니? 멋지게 헤엄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때까진 본인도 수달이 태어나면서부터 헤엄을 잘 치는 동물인 줄로만 알았다. 이름도 수달 아닌가. 항상 다 자란 성체 수달들의 날렵한 수영 솜씨만 봤던 터라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나 싶다. 결국 이때부터 특별 속성 수영강좌가 개설되었고 매일 한 시간씩 맹연습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는 얇은 물가에서만 침범 대며 주위를 탐색하기에 바빴다. 그러다 조금 익숙해지면 그보다 깊은 곳을 들어가지만 여전히 엉성해 그건 헤엄이 아니라 바둥거림에 가까웠다. 아직은 체력이 떨어져 잠잠이 쉬어야 하고, 호흡 조절도 힘들어 물 밖으로 나오면 연못가 나무기둥을 부여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만 했다. 사람과 흡사한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다. 이후 좀 능숙해지면 잠수도 시도하지만 머리만 숙이고 들어갈 뿐 엉덩이는 물 밖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이후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곧 능숙한 수영선수가 되었고, 자유자재로 잠수와 수영을 병행하며 넓은 연못을 가로지르는 멋진 어른 수달이 되었다.

그해 겨울에는 가슴을 쏘아내린 사건이 하나 있었다. 겨울이 되어 연못 전체가 얼음으로 덮였지만 수달은 숨구멍을 통해 드나들며 여전히 수영을 즐길 수 있었다. 그런데 얼음 밑에서 헤엄을 치던 수달이 연못 중앙에서 움직이지 않고 얼음 바닥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닌가.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곧 나오겠지 했는데 지켜보던 나를 점점 초조하게 할 만큼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그 자리였다. 불길한 생각에 연못에 뛰어 들어가 난리법석을 피워댔다. 그런데, 이윽고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무슨 일 있었냐고 나에게 묻는 듯 물 밖으로 나와 다가오는 것 아닌가. 과연 그때 수달은 무슨 생각으로 그러고 있었을까. 전혀 수달 같지 않은 어미에게 자신의 뛰어난 잠수 실력을 뽐내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

수달들과 지내다 보면 예기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모습들에 깜짝깜짝 놀라게 된다. 자연스레 어울리면서 수달은 내가 사람임을 잊고 나는 수

달이 수달임을 잊을 때도 있다. 찰나에 스치고 지나가는 인상적인 모습들. 개구쟁이도 있고, 소심한 아이도 있고, 언제나 세상이 궁금한 아이도 있다. 오늘의 엿보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의 수달이었나요.

